

2026년 9월 첫째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약속이나 계획은 주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쉽게 바뀌곤 합니다.

때로는 진로나 미래, 혹은 신앙적인 결단 앞에서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과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도니야가 스스로 세력을 모아 왕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불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솔로몬을 정확하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도니야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한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온 세상 창조주 다 같이

말씀봉독 열왕기상 1장 38-48절 다 같이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말씀,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세상 창조주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황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아도니아의 세상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온가족 합창]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사람의 가변적인 약속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친구와의 약속이 쉽게 바뀌거나, 혹은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 불안하거나 답답했던 적이 있었나요?

Q2. 내 미래나 기도 제목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하고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Q3. 눈앞의 상황이나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제로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